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을 위해 경상대학교, 미국 퍼듀(Purdue)대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월27일 발표했다.

퍼듀대와 경상대는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공동으로 국제생명자원응용연구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연구원에서는 동식물·미생물에 의한 바이오의약 개발, 바이오생체소재 개발, 바이오재조합 단백질개발, 기능성 미생물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미국 주립대학인 퍼듀대는 생명과학·약학·수의학·농생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2005년 경상대와 식물생명과학분야 복수박사학위제 협정을 체결했다.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는 송도 5공구, 7공구에 웰빙, 전문치료, 동서통합의학, 신약개발, 첨단뇌과학, 유전체, 재생의학 등 7개 연구센터와 의료관광, 맞춤형신약, 첨단의료기기, 첨단유전체이식의학 등 4개 클러스터를 갖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된다.

<화학저널 2007/08/28>